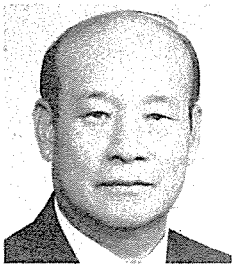


협 회 및 회 원 소 식

■ 三養食品工業(株)

全應瑠社長 就任 □



三養食品工業(株)(會長 全仲潤)은 지난 7월 9일자로 상임고문인 全應瑠氏를 三養食品工業(株)의 代表理事 社長으로 선임했으며 主要略歷은 다음과 같다.

主要學歷 및 經歷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卒業(碩士課程)
- 經濟企劃院 物價政策課長
- 農林部·糧政局長
- 韓國製粉工業協會 常勤副會長
- 韓國飼料協會 常勤副會長
- 三養食品工業(株)常任顧問

□ 제 2회 어린이장학금글짓기 대회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 개최 □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김복용)는 지난 7월 12일 한국야쿠르트유업강당에서 제 2회 어린이장학금 글짓기대회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총응모자 3,264건을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가 심사하였으며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서울명일국교의 성혜영어린이
- 우수상 : 서울갈현국민의 오유리어린이
서울일정국교의 김하경어린이
- 가작상 7명, 장려상 10명, 임선작 20명 등 총 40명에 대한 상장 및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 매일우유제품에

미아찾기 캠페인! □

매일유업(주)(대표: 金福鏞)은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1일 출고량 150만여개나 되는 우유 및 유산균 음료 패키지에 미아의 사진 및 신상명세를 게재, "미아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어린이를 찾습니다”와 부모를 찾습니다”의 2가지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미아찾아주기 캠페인은 현대 사회에 있어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미아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 유아식 전문회사로서의 ‘어린이보호’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으로서 이를 나누어 해결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앞으로도 매일유업은 이 캠페인을 인쇄될 수 있는 전제품에 확산하여 활용,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영양강좌 개최 □

지난 7월 7일 한국영양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유가공협회의 후원으로 호암아트홀에서 “식생활과 건전한 삶”이란 주제하에 영양강좌가 주부 및 학생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식생활과 건강-이화여대 김숙희 교수
- 영양소의 역할-경희대학교 박현서 교수
- 우유와 건강-이화여대 성낙용 교수
- 한국인의 맛과기호-연세대 이기열 교수

□ 우유체화에 대비한 방학중 학교급식 가정유치 확대 □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김복용)은 하기 방학으로 인한 우유체화를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학중 학교급식을 가정유치로 다음과 같이 우유소비 확대에 기여하였다.

- 분유 : 162M/T
- 시유 : 328, 484개/316.3M/T 계 478.3M/T.

□ 장기적인 우유수급정책 실시건의 □

한국유가공협회 회장(회장 김복용)와 낙농조

합연합회는 지난 6월 17일 유가공 및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우유 수급정책의 수립 실시에 관한 건의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했다.

동 건의 내용은 84년도 하반기부터 원유생산량의 증가와 우유제품의 소비둔화등 재고가 체화되어 유업체는 물론 낙농가도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유 생산량이 100만톤을 넘어선 85년도부터 원유생산량의 증가율은 큰반면 소비율은 둔화되어 재고 체화현상은 계속 될것으로 예상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 및 유가공업이 계속적으로 발전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장기적인 우유 수급정책의 수립 시행과 이의 법적인 뒷받침 마련을 요구했다.

- 원유 유통제도개선(집유 일원화 실시)
- 집유방법, 원유검사 계량업무의 표준화와 공영화 실시
- 원유 가격제도의 개선과 원유품질의 선진화
- 수요에 맞는 생산체제구축(계획생산제도)
- 낙농 중앙조정기구의 상설운영

□ 연세대 납유량 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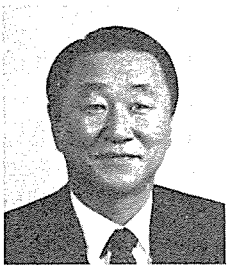
콜드체인 씨시스템운용 □

연세대는 85년도에 3대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집유하였으나 86.5월에 8대 중차 총 11대로 납유량 전량을 콜드체인 씨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목장들의 좋은 반응과 아울러 원유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판매원교육 □

해태유업(대표 閔丙憲)은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원 집체교육을 수원 원수원에서 지난 7. 18~19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 매일유업 최병인전무 축산학회에서 행정 및 봉사분야 공적상 수상 □



매일유업 최병인 전무는 지난 6월 28일 한국축산학회 창립3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국축산발전을 위해 업계 및 학계 일각에서 빈틈 없는 업무를 실행했으며 남다른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이나라 축산진흥에 이바지했으며 축산학 발전을 위해 신기술 보급을 비롯 산학협동 및 학술진흥학회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축산학회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행정 및 봉사분야상을 수상했다.

□ 분유누증 해소대책 수립요망 □

韓國乳加工協會(회장 金福鏞)는 지난 7월 4일 동협회 회의실에서 농수산부 金光輝축산국장을 초치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열고 유가공업계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타개해줄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업체대표들은 현재 업계가 분유재고 누증으로 심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해소키 위해 정부에서 특별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업체 대표들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지탈지분유 및 버터의 잉여분 3천톤정도를 정부에서 수매 비축해 줄것과 배합사료에 분유를 사용하고 대용유원료용으로 전지분유를 사용토록 해줄것등을 제의했다.

배합사료에 분유를 0.1%씩 사용할 경우 사료의 질향상은 물론 연간 6천톤의 분유재고를 소진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우유는 조합계통 낙농가나 일반유업체에 납유하고 있는 낙농가나 모두 같은데도 불구

하고 軍納은 조합통통만 계속 실시함으로써 일반유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 모든 유업체가 군 우유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장기적인 우유수급정책으로 原乳需給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야하며 집유일원화로 원유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검사업무의 표준화 및 공영화, 원유가격제도의 개선으로 품질의 선진화를 유도 함과 동시에 계획생산제도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유업체에서 수출한 전지분유 2천30톤에 대한 결손보전금 57억원 및 대용유 원료용으로 대용유업체에 판매한 전지분유 1천3백93톤에 대한 차액 33억원을 조속히 지급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 유산균음료 자두맛 개발 □

롯데햄·우유에서는 유산균음료 파인스(피인애플맛)에 이어 최근 인기가 있는 자두맛을 '867. 1부터 개발 시판에 나섰다. 기존 Pure-pak 포장에 Off-set인쇄를 도입하여 1,000ml, 135ml 두 종류를 생산·시판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당사(육)사업부에서도 8월초부터 닭고기 주원료로 하여 만든 색다른 맛의 켄터키프랑크 쏘세지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종래보다 1.5배 정도의 크기로 저가의 대중적인 제품으로서 후면에만 인쇄한 새로운 포장방법도 이 제품의 특색이다.

□ (株) 도투락사무실이전 □

지난 9월 4일자로 (株)도투락(대표이사 禹龍鎭)이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150

서울강남구역삼동820(신성빌딩 8층)

전화번호 : 557-5211